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End-of-Life Care Education using Self-reflection Diary on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저자 (Authors)	조명주, 전원희 Myoung-Ju Jo, Won-Hee Jun
출처 (Source)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 2015.12, 294-303 (10 pag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2) , 2015.12, 294-303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콘텐츠학회 The Korea Contents Socie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5227
APA Style	조명주, 전원희 (2015).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294-303.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5.*** 2017/05/16 08:3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End-of-Life Care Education using Self-reflection Diary on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조명주*, 전원희**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Myoung-Ju Jo(nicupicu@cup.ac.kr)*, Won-Hee Jun(jwh917@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이며 대상자는 실험군 69명, 대조군 68명이었고, 교육은 매주 1회, 회기당 100분씩 총 12회기 시행하였다. 자료는 일반적 특성,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test, Fisher's exact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영성과 임종간호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죽음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중심어 : | 교육 | 영성 | 죽음 | 임종간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end-of-life care education using self-reflection diary on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adopte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the subjects consisted of 6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68 in the control group. The education was performed for 100 minutes a session, once a week for 12 weeks.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t-test using SPSS/WIN 21.0 computed progra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irituali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garding death orientation, our resul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nd-of-life care education using self-reflection diary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spirituali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 keyword : | Education | Spirituality | Death | End-of-life Care |

접수일자 : 2015년 07월 07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8월 27일
교신저자 : 전원희, e-mail : jwh917@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가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마지막 성장이다[1]. 즉, 죽음은 인간의 생애와 발달 과정 중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며 죽음 이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영적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불행하며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1]. 선행연구들[2][3]은 젊은 연령층인 대학생들이 죽음을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이고 불쾌한 것으로 인식하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모순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4].

특히, 간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료인으로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생과 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5] 임종 환자와 가족이 존엄과 존중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간호사는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생의 자연스러운 한 단계로 삶과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임종간호에 대한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6].

한편, 임종 환자들은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영적 요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7]. 임종 환자 간호에서 간호사의 영적 접근은 이들의 영적 안녕을 도울 수 있다[8].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영적 간호 역량과 영성 간에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9] 임종 간호에서 간호사의 영적 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영성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영

성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로 임상 현장에 투입된다[10]. 이로 인해 영적 고뇌와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임종간호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 임종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간호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따라서 미래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적 간호교육프로그램이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12-14].

국내의 간호대학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임종간호교육을 선택 교과목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임종간호교육이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죽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4][6].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인건강이론 모형을 적용한 임종간호교육 프로그램이 영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15]가 있었으나 이는 단일군 중재 연구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는 이영은, 최은정, 박정숙[16]과 백설향, 이미애, 김인홍[17]의 연구가 있으나 두 연구 모두 단일군 전후설계를 시행하여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연구는 백설향, 이미애, 김인홍[17]과 신은주[4]의 단일군 중재 연구와 조혜진과 김은심[6]의 연구와 김숙남, 김현주, 최순옥의 연구[18]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군 중재 연구가 많았으며 이론 위주로 교과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9].

현대의 교육은 단지 교과 내용만을 다루는 전통적 학습에 만족하지 않고 학습자의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학습을 권하고 있다[20]. Dewey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학습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

득하여 적용함에 있어서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맥락화하고 재구조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21]. 성찰을 통하여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소리를 부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학습을 유의미하게 만들며 타인과 세상과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22]. 특히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자유롭고 주도적이며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이 독려되는 시기로서 글쓰기를 통한 자아성찰이 교육적으로 가장 최적화될 수 있다[21]. 이러한 점에서 자기성찰을 적용한 교육적 접근은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10][12].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자기 성찰의 체험적 학습을 포함하여 임종간호교육을 실시하고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둘째,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셋째,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U시에 소재하는 1개의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161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8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은 2학년 1학기 교과과정에 따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임종간호’ 또는 ‘보완대체간호’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였고 이 중 ‘임종간호’를 선택한 81명은 실험군에, ‘보완대체간호’를 선택한 80명은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및 진행과정 및 참여의 자율성을 설명하였다. 이 후 연구보조원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밀보장, 익명성,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의 자동폐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서면 동의서를 배부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동의서와 설문지는 분리하여 회수하여 연구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전조사 후 실험군에게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 교육을 매주 100분씩, 총 12회기 시행하였고 교육 종료시점에 연구보조원에 의해 사후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험군 81명 중 2회 이상 결석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과 대조군 80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하여 실험군 69명(85.1%)과 대조군 68명(85.0%)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test(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ans)를 적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0.5를 기준으로 양측검정하였을 때 각 군당 64명, 총 128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추정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내용은 국립암센터

의 호스피스완화의료 e-learning 교육과정[23]과 관련 문헌[24]과 선행연구[12][25]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학부 학생 수준에 맞게 구성한 후 간호학 전공 교수 1명,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1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을 제공한 실험군의 경우, 분반별 정원이 40명 내외이었기 때문에 41명과 40명의 2개 반으로 나누었고 연구자 1인이 같은 날에 2개 반 모두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조군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분반하였으며 보완대체간호에 대한 교수의 강

의식 이론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중재효과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반별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총 15주의 수업 기간 중 1주는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 신청 정정기간으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만을 시행하였고 8주와 15주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회기에서 제외하여 총 12회기를 시행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매 회기별 이론 교육 50분과 성찰일지 작업 50분으로 총 100분간 운영하였다.

이론교육은 연구자가 주도하였으며 성찰일지 작업은

표 1.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회	이론교육	성찰일지 주제	성찰일지 프로그램 내용
1	임종간호 개념과 철학 · 임종간호의 정의, 철학, 역사 · 현대의학과와의 차이	탄생, 삶, 죽음	· 탄생, 삶, 죽음의 색깔과 의미 · 탄생, 삶, 죽음의 의미
2	임종간호 이해 · 죽음에 대한 정의 · 죽음의 의학적 이해와 기준	내가 원하는 죽음	· 나는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 내가 죽을 때 내 옆에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 내가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	전인적 사정 · 전인적 사정의 중요성 · 전인적 사정의 범위	Happy Ending	· Ending Note (Mami sunada, 2011) - 본 것과 느낀 것
4	신체적 돌봄 - 증상 관리 · 증상관리의 원칙 · 증상별 간호	항아리 속의 나	· 세 개의 항아리 -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분류 · 각 항아리 별로 잃어버리게 될 때의 감정 · 각 항아리 별로 지키기 위한 노력과 잃어갈 때의 대처
5	신체적 돌봄 - 통증의 이해 · 통증의 분류 · 통증 완화의 장애요인 · 통증 평가 · 진통제와 비약물적 치료	Bucket List	·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 -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 7가지와 그 중 지금 실행 가능한 것
6	심리적 돌봄과 가족 돌봄 · Kbler-Ross의 죽음의 단계 · 말기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요구 · 돌봄제공자의 역할	영성과 삶	· 영성에 대한 나의 정의 · 영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
7	영적 돌봄 ·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 영성의 의미 · 영적 안녕과 영적 고통 · 영적 간호	삶의 의미와 목적	· 나의 이름의 뜻과 내 삶의 의미 · 절대자, 신, 우주, 자연과 나의 연결성
8	의사소통 I - 의사소통 방법 · 의사소통의 원리 · 효율적/비효율적 의사소통 기법	용서	·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용서 한 경험과 용서 받은 경험 · 원망을 느끼는 대상/상황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바라보기
9	의사소통 II - 나쁜 소식 전하기 · Buckman의 나쁜 소식 전하기 지침 · 예후에 대한 의사소통 ·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	감사	· 나에게 중요한 대상과 중요한 이유 ·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들 · 나는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10	생명윤리와 의사결정 · 생명윤리의 4대원칙 · 의사결정	사전의료의향서	· 의료유언장 - 의학적 치료에 관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11	임종 전·후 간호 · 임종 징후와 사인 · 임종 돌봄	나의 장례식 초청장	· 나의 장례식과 추모식에 대한 유언장 작성
12	사별가족 간호 · 슬픔 반응 · 사별가족의 고통과 관리	나의 묘비명	· 묘비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지표 설정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타인의 견해를 들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작업이므로 본 과정 동안 연구자는 학생들의 자기 성찰과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였으며 성찰내용을 돌아가며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성찰일지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과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매 시간 성찰일지 작성 여부를 점검한 후 개인이 보관하게 하고 시험 내용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성찰일지 작업은 도입단계에서 연구자가 성찰일지의 주차별 주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전개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성찰일지 작성 내용을 조별 나눔을 한 후 발표를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음 시간 성찰 주제에 대하여 공지하여 미리 생각해 올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도입단계(1-2회기), 탐색과 수용단계(3-10회기), 마무리 단계(11-12회기)로 구성하였다. 이론 교육의 도입단계에서는 임종간호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교육함으로써 임종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탐색과 수용단계에서는 임종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돌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영성과 생명의 유한성 및 삶과 죽음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임종 전·후 간호와 사별가족 간호를 교육하였다. 성찰일지 시간에는 가상적으로 죽음을 체험해보으로써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의 이론교육과 성찰일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3.2 영성

영성은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자신과 타인 및 절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영적인 태도 및 행위를 의미하며[19][26] 본 연구에서는 Howden[26]이 개발하고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27]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하위영역의 문항은 삶의 의미와 목적 4문항, 내적 자원 8문항, 관계성 10문항, 초월성 6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8~14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3.3 죽음의식

죽음의식은 임종과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의미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된 개념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복합적 현상을 의미한다[28]. 본 연구에서는 Thorson과 Powell[29]의 Death Orientation 측정도구를 박석춘[28]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의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horson과 Powell[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2이었고 박석춘[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3.4 임종간호태도

임종간호태도란 임종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완화·지지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 반응과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태도이다[30]. 본 연구에서는 Frommelt[30]가 개발한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FATCOD)을 조혜진과 김은심[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말기 환자 개인에 대한 태도 20문항, 가족 구성원에 대한 태도 10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이다. 긍정문항 15문항과 부정문항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최소 30점에서 최대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4이었고[31] 조혜진과 김은심의 연구[6]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점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의 효과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두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서의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 검정시 정규분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대상자의 나이, 성별, 부모님 생존 여부, 종교 유무, 전공만족도, 봉사활동 유무, 최근 가까운 사람의 임종 경험과 최근 1년 이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파악되었다[표 2].

2. 두 집단 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종속변수인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사전 조사의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표 3]에 기술하였으며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임종간호교육이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 검정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 교육 전·후 효과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영성은 실험군이 중재 전 92.59점에서 중재 후 94.36점으로 1.78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중재 전 95.34점에서 중재 후 93.28점으로 2.06점 감소하여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4, p=.043$).

죽음의식은 4점 만점 중 실험군이 중재 전 2.63점에서 중재 후 2.63점으로 동일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2.60점에서 중재 후 2.53점으로 0.07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51, p=.134$).

임종간호태도는 실험군이 중재 전 91.36점에서 중재 후 93.23점으로 1.87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90.69점에서 88.51점으로 2.18점 감소하여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47, p=.001$).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N=137)

변수	실험군 (n=69)	대조군 (n=68)	χ^2/t	p
나이(실수)	21.70±1.62	21.66±1.51	0.13	.900
성별 *				
여자	61 (88.4)	64 (94.1)	1.40	.366
남자	8 (11.6)	4 (58.9)		
부모생존 *				
생존	67 (97.1)	64 (94.1)	0.73	.441
사망	2 (2.9)	4 (5.9)		
종교				
유	30 (43.5)	28 (41.2)	0.74	.863
무	39 (56.5)	40 (58.8)		
전공만족 *				
매우만족	10 (14.5)	13 (19.1)	0.78	.852
만족	33 (47.8)	33 (48.5)		
보통	22 (31.9)	18 (26.5)		
불만족	4 (5.8)	4 (5.9)		
봉사활동				
유	37 (53.6)	39 (57.4)	0.19	.732
무	32 (46.4)	29 (42.6)		
최근 1년간 임종경험				
유	45 (65.2)	46 (67.6)	0.09	.857
무	24 (34.8)	22 (32.4)		
최근 1년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				
유	59 (85.5)	54 (79.4)	0.88	.377
무	10 (14.5)	14 (20.6)		

* Fisher's exact test

표 3.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N=137)

변수	실험군 (n=69)	대조군 (n=68)	t	p
	Mean ± SD	Mean ± SD		
영성	92.59 ± 13.86	95.34 ± 13.17	-1.19	.237
죽음의식	2.63 ± 0.37	2.63 ± 0.39	0.45	.650
임종간호태도	91.36 ± 7.42	90.69 ± 7.34	0.53	.595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후 효과 비교

(N=137)

변수	집단	Pretest		Posttest		t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영성	실험군 (n=69)	92.59 ± 13.86	94.36 ± 14.76	1.78 ± 12.04	2.04	.043	
	대조군 (n=68)	95.34 ± 13.17	93.28 ± 13.83	-2.06 ± 9.75			
죽음의식	실험군 (n=69)	2.63 ± 0.37	2.63 ± 0.36	0.00 ± 0.26	1.51	.134	
	대조군 (n=68)	2.60 ± 0.39	2.53 ± 0.33	-0.07 ± 0.28			
임종간호태도	실험군 (n=69)	91.36 ± 7.42	93.23 ± 7.75	1.87 ± 6.17	3.47	.001	
	대조군 (n=68)	90.69 ± 7.34	88.51 ± 7.91	-2.18 ± 7.42			

IV. 논의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을 적용한 후 실험군의 영성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의 이론 강의에서 영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자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자기성찰 과정이 간호대학생의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임종간호교육에 의미요법을 접목하여 실시한 후 영성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삶의 의미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김숙남 등[18]의 연구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종간호교육 후 영성이 유의하게 증가된 강은실 등[1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에게 강의, 토론, 자기 성찰,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된 영성 교육을 시행한 후 실험군의 영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정미자와 은영의 연구[12]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강의와 모듈을 적용하여 영성 교육을 시행한 후 영적 간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O'Shea 등[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임종 환자들과 가족들은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서 영적 안위를 위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지만 간호사들은 교육과 훈련의 부족으로 영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종교의 개념과 혼용하여 영적 간호 제공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9]. 임종 환자와 가족의 영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영적 성장을 격려하는 영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임종에 대한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앞도당하지 않고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통해 간호사 자신의 영적 자질을 키워야만 한다[5]. 따라서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임종 환자와 가족의 영적 요구와 영적 간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개발되어야 한다[19]. 그러나 간호대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영성에 대해 거의 고려해 본 적이 없고 90% 정도가 영성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음[10]을 생각할 때,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찰일지를 통한 임종간호교육 후 실험군의 죽음의식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7주간 매주 4시간씩 임종간호교육을 실시한 이영은, 최은정, 박정숙[16]의 연구와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16주간 매주 2시간씩 임종간호교육을 실시한 백설향, 이미애, 김인홍[17]의 연구에서 죽음의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16][17]은 모두 단일군 중재로 시행되어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RN-BSN 과정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4주간 매주 90분씩 이론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임종간호교육을 실시한 성기월과 조계화[31]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3주간 임종 교육을 실시한 Kurz와 Hayes[32]의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4][6][26][33]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은 단기간에 감소될 수 있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의 철학적 정립이 요구되므로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죽음의식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시간간격을 두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복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대상자들의 임종간호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4][6][18][30][3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임종 환자와 임종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임종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임종 준비를 돕는 간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4]. 또한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막연하게 인식하였던 죽음을 자신에게 대입시킴으로서 죽음에 대한 경험과 의식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내적 경험을 통해 기존에 가졌던 관점에 도전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35]. 다시 말해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간호 대학생들의 임종간호에 대한 지식의 증가 뿐 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내적 자기 성장을 도모하여 임종을 앞둔 대상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역량을 더욱 증진시켜 [36] 임종간호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임종교육을 실시한 후 4년간 임종간호태도의 변화를 추적 조사한 연구[34]에서 임종교육 직후 임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임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임종 환자와 가족의 돌봄 태도에 긍정적이었고 4년 뒤까지도 임종 돌봄 태도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고 교육과정 내에 접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식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정된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교육과정상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동일 학교, 동일학년에서 다른 선택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재의 확산이 완전히 통제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소속대학을 달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8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는 U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실험군 69명과 대조군은 68명이었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매주 100분씩 총 12회기로 이루어졌으며 각 회기별로는 이론교육 50분과 성찰일지 작성 50분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후 실험군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는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죽음의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둘째,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의 장기효과를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셋째, 이론교육 중심의 임종간호교육과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윤매옥,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의 죽음 불안, 영적 안녕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513-521, 2009.
- [2] K. Hegedus, A. Zana, and G. Szabó, “Effect of End of Life Education on Medical Students’ and Health Care Workers’ Death Attitude,” Palliative Medicine, Vol.22, No.3, pp.264-269, 2008.
- [3] 임송자, 송선희,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243-255, 2012.
- [4] 신은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생의 의미, 죽음 불안 및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pp.65-74, 2011.
- [5] 김숙남, 최순옥,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01-110, 2010.
- [6] 조혜진, 김은심, “죽음교육프로그램이 간호 대학 생의 죽음불안과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8권, 제2호, pp.163-172, 2005.
- [7] J. Swinton, “Promoting Healing Environments through Spiritual Care for Healthcare Professional and Patients,” Health & Mission, Vol.17, pp.15-23, 2009.
- [8] D. Nardi and L. Rooda, “Spirituality based Nursing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27, No.4, pp.255-263, 2011.
- [9] M. F. Chan, L. Y. Chung, A. S. Lee, W. K. Wong, G. S. Lee, C. Y. Lau, W. Z. Lau, T. T. Hung, M. L. Liu, and J. W. Ng, “Investigating Spiritual Care Perceptions and Practice Patterns in Hong Kong Nurses: Results of a Cluster 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Vol.26, No.2, pp.139-150, 2006.
- [10] L. A. Chism and M. A. Magnan, “The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Spiritual Care Perspectives to Their Expressions of Spiritual Empathy,”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8, No.11, pp.597-605, 2009.
- [11] G. Gama, F. Barbosa, and M. Vieira, “Factors Influencing Nurses Attitudes toward Death,”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Vol.18, No.6, pp.267-273, 2012.
- [12] 정미자, 은영, “간호대학생의 영적간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간호과학회지, 제41권, 제5호, pp.673-683, 2011.
- [13] J. Hoover,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Impact of Undertaking an Educational Module on Human Car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7, No.1, pp.79-86, 2002.
- [14] E. R. O’shea, M. Wallace, M. Q. Griffin, and J. J. Fitzpatrick, “The Effect of an Educational Session on Pediatric Nurses’ Perspectives toward Providing Spiritual Care,”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Vol.26, No.1, pp.34-43, 2011.
- [15] 강은실, 김영희, 이경리, “전인건강증제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2172-2179, 2011.
- [16] 이영은, 최은정, 박정숙, “호스피스 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호스피스 지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pp.280-288, 2012.
- [17] 백설향, 이미애, 김인홍,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 변화 연구-호스피스 간호 학습 전·후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제8권, 제3호, pp.357-365, 2001.
- [18] 김숙남, 김현주, 최순옥, “의미요법이 포함된 호스피스·완화 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종간호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456-465, 2011.
- [19] 이명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11권, 제3호, pp.265-274, 2004.

[20] 송재홍, “가르침과 배움의 여정으로서 자아성찰: 교과교육과 상담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제안,” 교육종합연구, 제4권, 제2호, pp.1-25, 2006.

[21] 박소연, 김한별, “대학생의 저널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과정에서의 자아정체감 형성 경험 분석,”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153-178, 2012.

[22] 김준희, “글쓰기의 치유 과정에 관한 연구,” 한말 연구, 제26권, pp.63-86, 2010.

[23] <http://hospice.el.or.kr>

[24] 비커밍연구소, *영화 속 죽음으로 삶을 그리다*, 북스힐, 2009.

[25] 김은희, 이은주,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9, 2009.

[26] J. W. Howden,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92.

[27] 오복자, 전희순, 소의숙, “한국어판 영성측정도구(S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연구,” 중앙간호학회지, 제1권, 제2호, pp.168-179, 2001.

[28] 박석춘, “한국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pp.68-80, 1992.

[29] J. A. Thorson and F. C. Powell,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s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44, No.5, pp.691-701, 1988.

[30] K. H.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Terminally III: An Educational Intervention,” *The 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20, No.1, pp.13-22, 2003.

[31] 성기월, 조계화, “홀리스틱 교육방법을 통한 말기임종간호수업의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9권, 제4호, pp.684-695, 2008.

[32] J. M. Kurz and E. R. Hayes, “End of Life Issues Action: Impact of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3, pp.1-13, 2006.

[33] N. E. Conner and V. W. Loerzel, and N. Uddin, “Nursing Student End-of-Life Care Attitudes After an Online Death and Dying Course,”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Nursing*, Vol.16, No.6, pp.374-382, 2014.

[34] J. M. Kaye and G. Loscalzo, “Learning to Care for Dying Patients: a Controlled Longitudinal Study of a Death Education Course,” *Journal of Cancer Education*, Vol.13, No.1, pp.52-57, 1998.

[35]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상담자의 자기성찰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 연구*, 제4권, 제3호, pp.367-380, 2003.

[36] S. Jane, *Patient and person: interpersonal skills in nursing(4th ed.)*, Elsevier Health Sciences, 2009.

저 자 소 개

조 명 주(Myoung-Ju Jo)

정희원



- 200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0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3년 1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

전 원 희(Won-Hee Jun)

정희원



- 199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간호교육